

CHUKSAN News

• 축산소식



Hanwoo News

한우소식

한우캠페인광고 '한우 암행어사'편 선보여

한우자조금, 김상경 등 암행어사 출두 한우 지키기 컨셉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남호경, www.hanwooboard.or.kr)는 15일부터 한우캠페인 광고 '한우 암행어사' 편을 TV를 통해 선보였다. 이번 한우캠페인 광고는 4천8백만 국민 모두가 한우 지킴이이며, 한우를 지키는 것이 바로 이 땅의 5천년 문화유산을 지키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지난 5월 31일부터 이틀간 촬영된 이번 광고는 마패



가 아닌 한우가 그려진 '우패' 를 들고 있는 암행어사의 등장으로 눈길을 끈다. 특히 드라마 대종세왕에서 활약하고 있는 김상경을 메인모델로 위촉해, 식탁위의 국보 1호 한우의 자존심과 위엄성을 담아내고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임봉재 팀장은 "이번 광고를 통해 4천8백만 국민 모두가 한우를 지키는 한우지킴이가 되어주길 기대한다"며 "미국산 쇠고기 전면 개방에 앞서 한우만이 한우로 팔릴 수 있는 유통체계가 정립되기 위해 국민 모두가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우자조금 광고는 지난해 대장금편으로 큰 호응을 받았으며, 이번 '한우 암행어사' 편으로 2008년 한 해 동안 한우의 안전성과 맛의 우수성을 알리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라이브뉴스 객동신 기자, at@livesnews.com

[최종편집 : 2008년 6월 17일]

Dairy Farming News

낙농소식

낙농가 원유가 인상 투쟁 접화... 도별 거부 시기 조율 중

"최악의 경우 납유도 거부"

낙농가들이 지난 17일 여의도에서 총궐기대회를 개



CHUKSAN News

• 축산소식



최하면서 원유가 인상 현실화를 위한 투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배합사료·조사료가격의 폭등, 기름값 상승, 쿼터 감소 등으로 짓을 짜도 남는 게 없는 낙농가들로서는 생존권 사수를 위해 농장이 아닌 아스팔트 위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낙농가 29.4% : 유업체 7% 입장차 커 협의 계속 결렬 이승호 회장 무기한 단식 중

■ 생산비 산출 기준 달라 유업체·낙농가 '평행선'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친 낙농진흥회 소위원회와 수차례의 실무자 회의는 낙농가와 유업체간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끝나는 상황이 되풀이됐다. 생산비를 산출하는 기준점이 달라 원유가 인상폭의 차이가 컸기 때문이다.



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가 지난 15일 원유가 현실화를 요구하며 제시한 인상폭은 29.4%이다. 2004년 대비 면세유 가격 103.7%, 조사료 가격 53%, 배합사료가격 40% 폭등하는 등 생산비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협회는 2004년 리터당 584원이었던 원유 기본가격을 기준으로 5월 현재 약 34.4%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소비 위축 등을 감안해 29.4%의 조정안을 공식 발표했다.

반면 유업체측에서는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우유 리터당 생산비 509원을 기준으로 올해 사료가격 인상분 가중평균치를 적용해 7%대의 생산비가 상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낙농가들은 유업체측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본보가 조사한 배합사료가격에 따르면 원유가 13% 인상이 타결됐던 2004년 8월 이후 평균 인상폭은 31%에 달하고 있다.

특히 2008년 평균 인상폭은 24.7%로 유업체가 주장하고 있는 7%대보다 월등히 높다. 결국 인상폭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업체가 설득력이 없는 근거자료를 계속 제시해 협상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배정식 낙농육우협회 부장은 “올해 인상된 사료가격만 15%가 넘는데 유가공협회는 7% 남짓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면서 입장차이가 커져 계속 시간만 흐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 거세지는 반발

유가공협회가 지난 19일 ‘우유 생산비 조정’에 대한 우리의 입장’에서 “덤주기 행사 중단 후 하루 800톤의 우유가 남고 재고금액이 950억원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생산자측이 요구하는 29% 인상안은 낙농산업을 더 힘들게 할 것”이라며 “생산비 절감을 위해 낙농가들은 무슨 노력을 했느냐”고 밝히면서 농가들의 불만은 최고조에 달했다.

특히 서울우유 조합원들은 지난 20일 회의에서 오는 25일 서울우유 본사에서 원유가 인상 등을 요구하는 집회를 개최하기로 하는 등 농가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낙농인 총궐기대회 이후 유가공협회가 농가들의 마음을 헤아리기보다는 언론 플레이를 통해 농가들을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는 것.

낙농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연 유업체들은 생산비 절감을 위해 그리고 농가와의 상생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지 의문스럽다”면서 “낙농가가 없으면 유업체도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는 것이냐”고 지적했다.

낙농육우협회도 20일 공개질의서에서 “유업체간 과당경쟁으로 촉발된 우유 덤판매를 농가에게 책임을 묻는 건 모순”이라며 “독일은 원유가격을 인상했지만 소비자에게 전부 반영하지 않았는데 유업체들은 고통 분담 노력의 의지가 없느냐”고 반박하고 있다.

▶ 한국농어민 신문. 이현우 기자 [최종편집 : 2008년 6월 23일]

Swine News 양돈소식

돈육값 급등해도 양돈 농가 또 자살

무안 양돈농가 경영난으로 사료공급 중단 등이 원인
돈육 가격이 급등하며 최고가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도 양돈농가는 여전히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자살했다는 비보가 또 날아 들었다.

지난 4일 사망한 김용남(55세)농가는 전남 무안군 삼향면 왕산리 덕산부락 소재에서 양돈을 하다가 경영 악화에 사료까지 중단된 현실을 비관해 3일 자살을 시도해 4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10년간 농장에서 일을 하다가 직접 모돈 80두(전체 800여두) 규모의 농장을 운영했으나 소모성 질병에 의해 큰 피해를 입어 심각한 경영난을 겪으며 6

천여만원의 부채로 인해 사료 공급이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력이 부족해 긴급 사료구매자금도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사료 공급을 위해 이리 저리 사료회사를 교체하다가 사료공급이 중단되어 5일간 돼지를 굶기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양돈 관계자들은 이런 자살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경영이 어려운 양돈농가들에게 폐업 보상금을 지원해 폐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씨의 장례식장은 목포시 산정동 소재 상록장례식장이며 고인의 명복을 빈다.

▶ 라이브뉴스 곽동신 기자, a1@livesnews.com

[최종편집 : 2008년 6월 5일]

Poultry News 양계소식

SI이후 닭값 회복 · 병아리 값은 초강세

큰닭 1,400원 · 병아리 500원대까지 올라

살처분 이후 육계농가 입식 수요도 맞물려

전국적인 소비촉진 행사와 수매 등에 힘입어 산지 닭 가격이 오르고 복 경기를 대비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병아리 시세가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

양계협회 조사에 따르면 13일 현재 대닭 기준 산지가격은 1천400원대이며 중소닭은 1천50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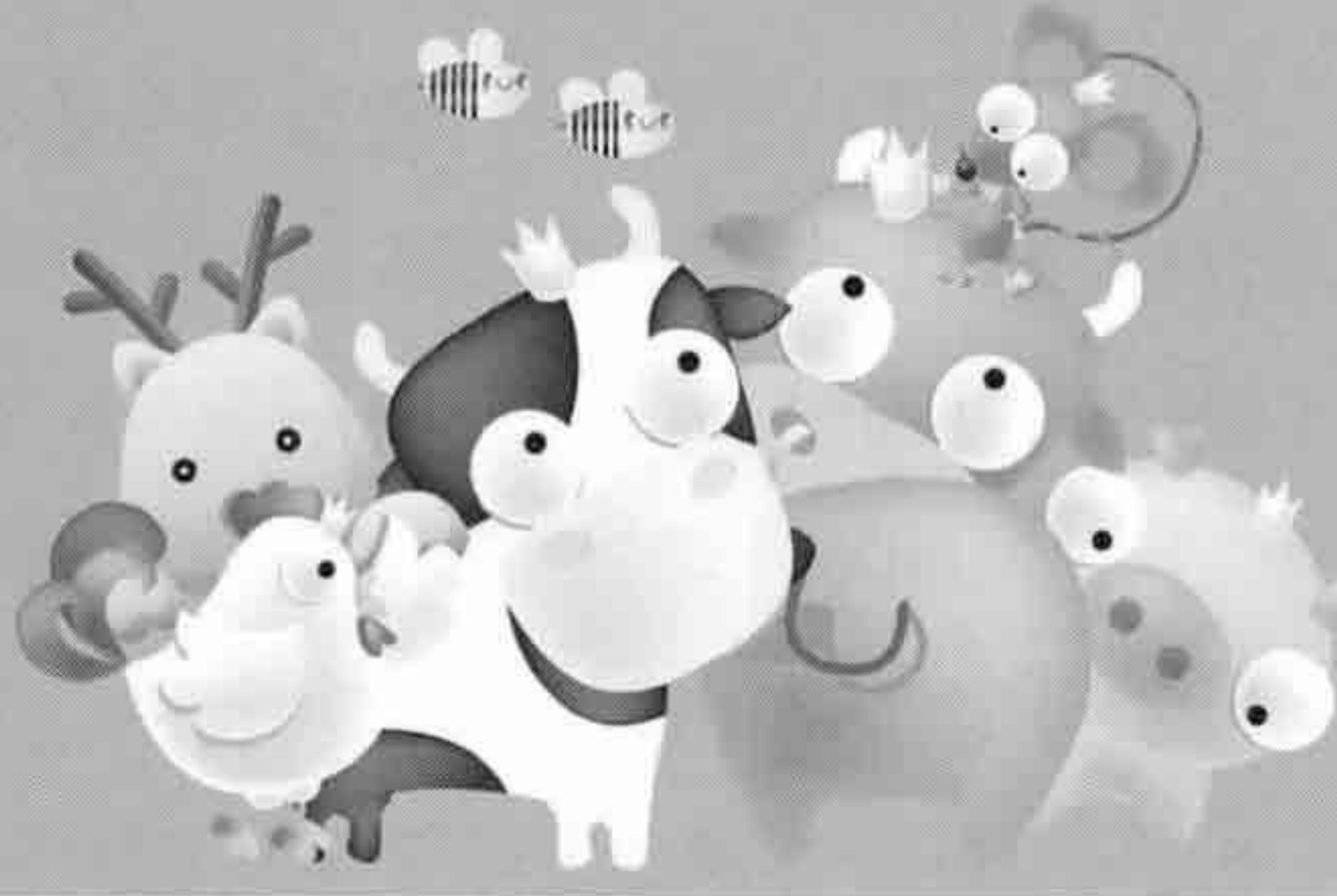
또 계육협회 조사에서는 1천600백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병아리의 경우 복 경기를 대비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500원대로 크게 올랐다.

이처럼 산지 닭 가격이 오르고 있는 것은 정부 수매가

CHUKSAN News

• 축산소식



원활히 이뤄지면서 일반 유통물량이 감소했고 AI사태가 마무리에 들어갔으며 각종 소비촉진 행사로 인해 닭고기 소비가 어느정도 회복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살처분 두수 증가로 인해 출하물량이 줄어든 것이 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병아리 가격은 AI 발생 이후 100원대에서 거래되던 것이 13일 현재 500원대로 초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북 경기를 대비한 수요가 크게 증가했고 살처분 조치가 취해진 육계농가들의 입식 수요가 맞물렸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Lhyoung@chuksannews.co.kr

[최종편집 : 2008년 6월 14일]

Bee-Farming News 양봉소식

☞ 아카시아꿀 '풍작'...양봉농가 '웃음꽃'

올 봉군당 채밀량 57.6kg... 전년 보다 71% 증가
올해 아카시아꿀 수확이 평년을 웃돌아 양봉농가들의 얼굴에 모처럼 웃음꽃이 폈다.



한국양봉협회(회장 전기현)가 농촌진흥청에 의뢰한 올해 아카시아 벌꿀 채밀현황 조사결과, 전국 11개 시·군 30명 전업 양봉농가의 올해 봉군당 채밀량은 57.6kg으로 작년 채밀량 33.7kg보다 7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까시나무 흑파리와 황화현상 등의 피해로 인해 2003년 이후 작년까지 평년 생산량의 15%~70% 생산에 못 미쳐 양봉농가들의 시름이 깊어진 상황에서 올해의 생산 호조는 가뭄에 단비와 같다.

조사대상 농가당 평균 채밀량은 5,962kg으로 작년 채밀량 3,296kg에 비해 80% 증가하였다. 협회는 올해 국내 아카시아꿀 총생산량은 25,000톤으로 작년 15,000톤보다 67%정도 증가할 것으로 잠정 추산하고 있다.

양봉협회 전기현 회장은 “설탕을 전량 외국에서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생산할 수 있는 고급 천연당인 꿀의 생산량이 증가한 만큼,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위해서도 꿀 소비가 촉진되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dilee@chuksannews.co.kr

[최종편집 : 2008년 6월 11일]